



지난 4일 아들 김용우(생도 62기)군의 육사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는 김장수 육군참모총장(오른쪽).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김장수 육군참모총장, 임관 아들에 소위 계급장

김장수 육군참모총장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는 아들의 계급장을 직접 달아준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7일 육사에 따르면 김장수 육군총장은 지난 4일 아들 용우(25·생도 62기)군의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 생도 교육을 마치고 자신의 뒤를 이어 군문에 들어서는 아들 어깨에 소위 계급장을 달아줬다는 것.

김 소위의 임관식에는 김 총장 내외와 친지, 학교간부, 훈육요원, 후배 생도 등이 참석해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김 소위는 프랑스 육군사관학교(Saint Cyr)에서 위탁교육을 받느라 동기생들보다 5개월여 늦게 이날 임관식을 하게 된 것.

그는 2003년 프랑스 육사 위탁교육생으로 지원, 어학시험 등 일정 자격시험을 통과한 뒤 그해 6월25일 입교해 38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 소위는 육군보병학교에서 오는 11월부터 4개월간 초등군사반 교육을 받은 후 아전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할 계획이다.

금호아시아나, 죽호학원에 장학금·후원금

금호아시아나 그룹(회장 박삼구)이 7일 북구 운암동에 위치한 죽호학원에서 박삼구 회장, 김성선 금호고속 사장, 오남수 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죽호학원 안준 이사장, 이건일 광주중앙증 교장, 김재일 광주중앙여고 교장, 봉병하 금호고교장, 이인수 금과공고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및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전달된 금액은 성적 우수학생 60명에 대한 장학금 4천671만 원과 결손·결식학생 105명에 대한 후원금 1천145만4천800원으로 모두 5천816만4천800원이다.

/이종태기자 jtlee@

포스코 나눔의 집 이용자 10만명 돌파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포스코 나눔의 집'의 이용자가 10만명을 돌파해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나눔'과 '참여'라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광영동과 태인동 '나눔의 집'은 무료급식사 10만명 돌파기쁨을 지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7일 제선부 직원들이 태인동 나눔의 집에서 인근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요즘 현창 제 맛을 내고 있는 '광양 전어'를 직접 구운 '전어구이'와 '회무침'을 대접했다.

/광양=김종호기자 chikim@



■ 다산초당 복원 '황토 구들장' 대가 민 총 기용

“좋은 구들장? 자연 섭리 따라야제”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보다 좋은 집은 없지요”

70년을 황토집 짓는데 바쳐온 민총기(87·전남 해남군 계곡면·사진) 응은 전통 한옥 전문가다. 특히 그는 황토 구들장 대가다.

민 응은 지난 한 달 동안 강진군 다산초당 구들과 황토벽 작업을 해왔다.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걸릴 이 작업을 끝으로 하고 최근 3~4일은 화순군의 한 황토집 온돌 작업을 하고 있다.

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 찾아나라

그가 만든 황토집은 갈라지지도 않고 깔끔하기로 유명하다. 작업용 황토를 만들 때 그만의 노하우가 있다. 장판을 깔지 않고 벽지가 없이 황토에 바로 들키를 바른 그의 황토집은 흙냄새도 나지 않고 몸에 흙이 전혀 묻어나지

도 않는다. 또 그가 만든 온돌방은 윗목 아래목 없이 방 전체가 따뜻하다.

민 응은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비결”이라며 전통 온돌의 이치를 설명했다. 그는 “물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물은 그 반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찾아난다”

며 “이 이치대로 구들장을 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아궁이를 부엌 바닥보다 50cm 가량 깊게 파 놓는다.

민 응은 “굴뚝은 대개 아궁이와는 대각선 방향에 배치해 불길이 방 전체를 돌아 나가도록 해야 하지만 이 역시 그 동네의 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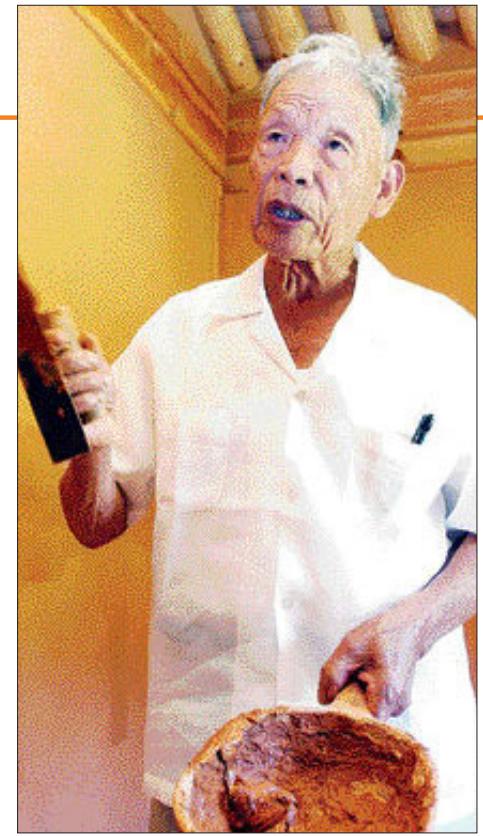
그는 또 “불길이 바로 닿는 아래목보다는 윗목이 먼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방고래를 잘 놓으면 불길이 쉽게 빠져 나가지 않아 한겨울에도 일주일 이상 온기가

남아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열아홉 살 때 이 일을 시작했다는 그가 건넨 명함에는 ‘흙의 전통을 이어 황토집 짓는 장인’이라고 적혀 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일을 다다가 6·25 때 해남까지 피난과 70여년을 살고 있다. 그는 이 일을 하며 8남매를 키웠다.

줄뚝 배치는 아궁이와 대각선으로

시멘트가 들어오면서 수입이 크게 줄어 살림이 어려울 때가 많았지만 한 번도 업종 전환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만큼 황토가 좋았다. 그는 제자로 7~8명을 키웠지만 조금만 배우면 혼자 일한다고 나가버려 지금은 두세명의 제자만 그의 곁에 남아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일을 제자에게 맡기지 않는다. 그는 “누구에게 시킨다고 제대로 일을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낫지요”라



고 말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애정이 넘쳐났다. 그는 50년 전 지은 해남군 마산면 원주 이씨 사당과 민씨 가문 6칸 집집을 스스로 '잘 지은 집'으로 꺾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60년대 천재소년, 드디어 세계 지성으로

6살때 미적분 푼 김웅용씨, 세계3대 인명사전 등재

1960년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동이 있었다.

5살때 4개 국어를 구사하고 6살때 일본 후지TV에 출연해 미적분을 풀어내 세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아이큐 210, 1980년 판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 지능지수 보유자로 오르기도 했다.

4살때부터 7살때까지 청강생으로 한양대에서 물리학을 공부했고 8살때 인 1970년 미국 우주항공국(NASA)의 초청으로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면서 1974년부터 5년간 나사 연구원으로 일했던 김웅용(42·공학박사)씨.

그러나 1978년 돌연 미국 생활을 접고 귀국해 1981년 충북대에 입학하자 말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은 ‘실쾌한 천재’라고 이를 달아 입방아에 올렸다. 그러나 그는 결코 실패한 천재가 아니었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또래도, 친구도 없이 미 항공우주국이 주는 과제를 수행하는 첫비비같은 ‘박제 인생’에 질려 돌아왔을 뿐 실패한 삶을 산 것은 결코 아니었다.

총북대에 입학하면서 톡톡공학으로 전공을 바꾼 그는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국토환경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하면서 연세대와 충북대에서 강의를 하는



바쁜 일상속에서도 그는 꾸준히 국내 외 저널에 치수와 수리학 분야 논문 90여편을 게재하면서 자신의 진가를 알리기 시작했다.

결국 물들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3대 인명사전에 모두 오르면서 그는 명실상부한 세계의 지성으로 인정받게 됐다.

여수소방서 조경래 소방교수
소방안전봉사상 본상 수상



조경래(39) 여수 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교 7일 정부 중앙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33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본상을 수상했다.

조 소방교는 95년 12월 소방사로 임용돼 여수소방서에서 근무를 시작, 11년여 동안 화재진압 및 구조대원으로 활동하면서 2천500여 회의 재난사고 현장에 출동해 1천900여 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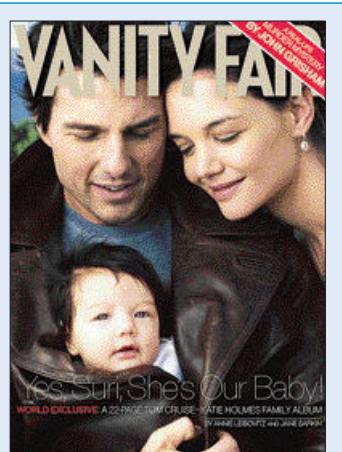
무안출신 독지가 임성준씨
3천만원상당 가전제품 전달



임석준(67) 서울 임성상사 대표가 최근 TV·노래방 기기 등 3천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무안지역 읍·면 노인당과 독거노인 가정 등에 전달했다.

무안이 고령인 임씨는 20년전부터 불우시설과 노인시설 등에 5억원어치의 전자제품을 전달해온 독지가.

/무안=이원희기자 whlee@



톰 크루즈 부부 딸 공개



정기언 동신대 총장
13일까지 中 대학 방문



정기언 동신대 총장은 9일부터 13일까지 죄영표 언어교육원장과 양종열 국제교류 협력과장 등 대학 실무자와 함께 중국 동북사범대학과 장춘이공대학 등을 방문,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인사

◆광주시교육청
◇5급 전보
▲과학기술평생교육과 평생교육 담당 이정의 ▲총무과 의회법무 담당 한홍규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주연규
▲광주시학생교육원 총무부장 이원영

수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과 로스엔젤레스 가판대에 올려진 월간 베니티페어 9월호의 표지와 특집 사진모음을 통해 공개됐다.

수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과 로스엔젤레스 가판대에 올려진 월간 베니티페어 9월호의 표지와 특집 사진모음을 통해 공개됐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0-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족

▲김철영씨 차남 원태군 정두영(광주 중부의원장)씨 장녀 혜원(아시아나 항공) 양=9일(토) 오후 1시 신양파크호텔 그랜드홀.

▲하홍범씨 장남 성국군 박종철(성암국제수련원·천문대)씨 장녀 은지양=9일(토) 낮 12시 센트럴호텔.

▲조보훈(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씨 장남 성우군 박종열씨 차녀 세원양=9일(토) 오후 1시 순천시로얄호텔 별관 웨딩홀 3층 목련실.

▲노회행(전남지방경찰청 항공대장)씨 장남 광일(공문교류 연구원)군 윤도중씨 차녀 혜영양=10일(일) 오후 1시 20분에 베럴루션웨딩컨벤션 2층 라벤더홀.

▲신복진(당대 나무골테마공원·전 언론인)씨 차남 광호(남도일

보 사진부(차장)군 김유진(동성종합건설 이사)씨 차녀 정현(광주매일디자인팀) 양=10일(일) 오후 1시40분 메리어트웨딩홀 1층 에메랄드홀.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사무실 223-2100

▲비둘기기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에 약속 목·금요일 652-1366, nam9939@dreamwiz.com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655-3688

▲송원고 총동창회 기별회장단 월례회=11일(월) 오후 7시 고향토

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부 무료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문의 363-2240

▲시각장애인 점자 정보 단말기 보급=오는 20일까지 접수. 문의 광주시 시각장애인협회 672-9535

동장·동문화

▲재광 여수고 동문화(회장 채봉식) 모임=9일(토) 오전 8시25분 광주문화회관 225-5631

▲복성중 제 9회 동창회(회장 장 김원상) 모임=12일(화) 오후 7시 계림동 미연회관. 226-4743

▲승원고 총동창회 기별회장단(회장 정한영) 임원회=14일(목) 오후 7시

종친회

▲김녕김씨 광주 종친회(회장 김현만) 모임=8일(금) 오후 7시 만수회관 223-1683

▲재광 청풍김씨 회수회(회장 김유방) 모임=11일(월) 오후 7시 해성회관 526-7890

▲전주리씨 대동종족회 광주전남 도지원 이화회 월례회=12일(화) 오후 6시 광주전남도지원 회의실. 225-5631

▲의